

# 완주군, 청년공간 3곳 조성

### 5월 삼례 1호점 첫 오픈... 혁신도시 2호점·고산 3호점 예정

완주군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생긴다.

완주군은 청년들이 만나 자유롭게 상상하고 배우며, 활동하고 쉴 수 있는 청년공간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우선 삼례문화예술촌 인근에 청년공간 1호점을 조성 중이다.

오는 5월경 문을 열 청년공간 1호점은 삼례 삼삼오오 게스트하우스를 거점으로, 지역청년 누구나 참여하고 어울리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년이 거주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청년공간 1호점 오픈 전에 임시공간(삼례 제리스튜디오)에서 화요만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화요만찬은 매주 화요일 저녁 6~9시 완주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해 로컬푸드 요리를 직접 만들고 먹으며,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조언도 들을 수 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6회에 9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주군 청년공간 2호점을 이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관련한 인큐베이팅 센터, 창업공유 공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완주군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화요만찬은 매주 화요일 저녁 6~9시 완주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해 로컬푸드 요리를 직접 만들고 먹으며,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조언도 들을 수 있다.

곳으로, 창업 청년과 혁신도시 직장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활성화된 곳에 청년공간 3호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일 군수는 "청년들이 마음껏 상

상하고, 어울리고, 고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구상, 디자인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공동체(더 그루오브 오디언스)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이외에 공간 프로그램, 화요만찬 등의 청년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에 연중 마을잔치 열린다

### 진안군마을축제 발대... 9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진안군마을축제가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축제 참여마을 주민, 관련 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난 9년의 마을축제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영상 시청과 기존 여름행사 위주로 다양하게 진행되던 마을축제를 올해엔 좀더 마을 속으로 들어가 마을의 전통 행사와 고유 자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치러지는 연중 마을잔치로 치러지게 될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을축제의 모태인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제10회째를 맞이하여 올해 진안에서 마을축제와 함께 개최하게 될 예정으로 마을주민과 관련단체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진안만의 색깔 있는 마을축제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마을축제가 마을중심의 마을 축제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며 올해에는 45개의 마을에서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마을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위해 각 마을 특색에 맞는 마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마을축제는 연중 각 마을에서 개최되는 마을축제와 함께 9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마을축제, 진안의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장터 '축제와 만나장', 달빛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있다.

신애숙 마을축제조직위원장은 "진안 이 마을축제의 원조로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와 함께 진안고원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무주군은 무주읍 오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제72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나무심기, 묘목나누기 등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통해 나무 심는 방법과 산불예방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후 1ha 규모에 편백나무 1,500그루를 심었다.

향로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269ha) 규모에 산림생태와 휴양, 문화,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 중)는 내도리 무주이일랜드생태테마파크를 비롯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들과 어우러져 무주군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표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으로, 무주군은 지난 2011년부터 20ha규모에 삼림육에 이로운 편백나무 3만본을 심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몽치고 힘 모아야 합니다"

### 무주WTF 세계태권도대회 이연택 조직위원장 초청 특강



무주군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연택 조직위원장을 초청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명예 군민증을 받은 이연택 위원장은 "학창시절 봉사활동을 하며 무주와 첫 인연을 맺은 지 61년이 되는 해에, 그것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올해 무주군의 명예군민이 된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려있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회를 잘 치러내면 무주는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우선 대회 참가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군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 노력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 무주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 무주사람들의 정을 느끼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태권도성지로서 무주군을 제대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태권도 중추국인이나,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니까 태권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치열했던 대회 유치전에서도 봤듯이, 또 올림픽 종목 경쟁에서도 느끼듯이 위기감을 갖고 국기 태권도를 지키며 성지 태권도원을 세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며 "태권도와 태권도원이 무주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불어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연택 위원장은 특강을 앞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며 무주군이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는 트라이앵글 관광 권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지적재조사 효과 만점

진안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경제 불분명에 따른 오랜 분쟁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개 지구 2,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 필지의 경제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5년 사업지구인 진안읍 군하지구는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조사 측량에 의한 확정 선으로 도시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권리 제한에 따른 국민 재산권 피해 방지는 물론 향후 민원발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63-430-2263)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 봉동읍, 민·관 협력 집수리

완주군 봉동읍은 민관협력으로 주거환경개선 집수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집수리는 봉동읍 통합시례관리 회의에서 논의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실천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3개월 동안 민관협력으로 집수리를 실시한 대상지는 5세대이며, 조순가정 및 청각, 언어장애인 등 독거노인으로 대부분 정확한 건축연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노후주택이다.

봉동읍은 지난해 11월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맺은 완주지역자활센터 부설기관 '스웨코'와 협력해 지붕 교체에 필요한 자재를 없고 지붕 이음새를 맞춰 경비최소화로 지붕 집수리를 진행했다.

또 낡은 방문과 창호지로 된 창문의 집에서 지내는 장애인세대와 독거노인 세대에는 창호지 문을 떼어 내고 단단한 새시 문으로 바꾸어 달고,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집의 고장난 연탄보일러를 수리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광장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 활성화

### 장수군, 3~12월 운영

장수군은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장수 한 누리전당에서 '광장지도자사업'을 운영한다.

광장지도자 사업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월요일 대 전문지도자를 배치해 요가, 에어로빅, 밸리댄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에 배치된 지도자들은 생활체육 지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로 체육활동 지도는 물론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동호인 클럽 결성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친목 도모 등을 돕는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운영한 광장지도자사업에서 누적인원 7,7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해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군민화합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체육팀(063-350-5551), 장수군체육회(063-353-733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장수군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석유판매업소(주유소 13개소, 일반판매소 5개소)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은 장수군이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된 점검사항은 유사석유제품 취급단속, 계량기 사용공차 점검 및 주간보고제 이행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19° 375ml  
Jinan Hongsam  
Authentic Ginseng Wine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